

카이탁 스포츠 파크 공식 개장

홍콩의 대규모 스포츠시설인 카이탁 스포츠 파크가 3월 1일 화려한 개막식 및 공연과 함께 공식 개장하였다. 총 28 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카이탁 스포츠 파크는 다목적 스포츠 시설과 레크레이션 시설을 갖춰 앞으로 홍콩의 스포츠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카이탁 스포츠 파크의 최상급 시설들은 수만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좌석과 무대도 관중들에 맞춰 변동이 가능하여 국제대회나 규모가

큰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관람객들은 스포츠 파크의 개방된 공간과 더불어, 음식점과 매장을 즐길 수 있어 이상적인 복합시설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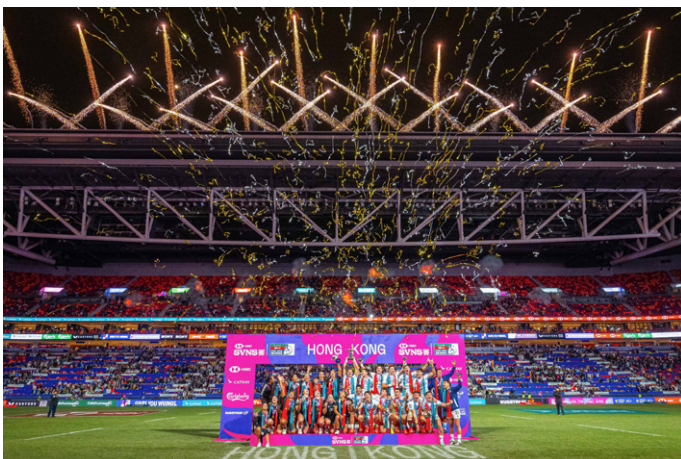
카이탁 스포츠 파크는 수준 높은 시설과 스포츠 관련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연령과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엔터테인먼트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장 직후 2025년 월드 스누커 그랑프리(3월

4일-9일), 카이탁 아트 위크(3월 21일-27일), 홍콩 세븐스(3월 28일-30일), 다이닝 코브 카니발(Dining Cove Carnival, 3월 21일-27일)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홍콩의 월드클래스 경기장은 향후 더 많은 문화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행사와 국제적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여, 아시아의 이벤트 도시로서의 홍콩의 명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월1일 카이탁 스포츠 파크 개막식에 참석한 존 리 행정수반(중앙)과 그 외 주빈



홍콩 세븐즈, 3월28일-30일 카이탁 스포츠 파크에서 열려



3월1일 공식적으로 개장한 카이탁 스포츠 파크

국제기술박람회 이노엑스(InnoEX) 2025,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의 홍콩의 역할 조명



4월 13일 이노엑스에 참가한 폴 찬 재정사장(중앙)



이노엑스 스마트 홍콩 파빌리온을 방문한 폴 찬 재정사장(좌측에서 다섯 번째)

혁신기술산업부와 홍콩무역발전국은 제21회 홍콩 춘계 전자제품박람회와 더불어, 제3회 국제 기술박람회 이노엑스(InnoEX)를 4월 13일-16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148개 국가 및 지역에서 8만8천명 이상의 바이어들이 참가하였다.

올해의 이노엑스는 전세계의 최첨단 혁신적 R&D와 솔루션을 선보였다. 스마트 홍콩 파빌리온은 100가지가 넘는 테크놀로지 솔루션과 더불어, 제품 전시와 라이브 쇼케이스를 혼합해 인공지능(AI)에 관한 돌파구나 데이터 기반의 기술,

스마트 시티의 발전 등을 강조하였다. 홍콩에서 혁신기술을 선보인 이번 파빌리온은 산업간 협업을 촉진시키고, 기술 발전을 이끌어, 홍콩이 미래 I&T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선두주자로 자리잡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판단된다.

홍콩, 높은 등급으로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순위 3위 차지

홍콩은 영국의 Z/Yen과 중국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금융센터지수(GFCI) 보고서에서 추가 11점을 획득하면서 종합점수가 총 760점을 이뤄내 1등과 간소한 차이로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석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보고서는 인적 자원,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등의 평가 항목에서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업 환경이나 도시 평판 면에서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홍콩에 부여함으로써,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와 강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홍콩국제공항,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화물 공항'으로 재선정



홍콩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화물 공항 순위에서 1위를 선정되어, 2010년 이후 연속으로 14번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홍콩국제공항은 2024년 한 해 동안 490만 톤에 달하는 화물을 처리하였다. 공항측은 최근 제3 활주로 시스템을 개통한 것에

더해, 신규 화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였다. 홍콩국제공항의 고유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 홍콩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항공 화물 업계와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홍콩국제공항을 세계적으로 주요 허브공항으로 강화시킬 예정이다.

상무경제발전국장, APEC 회원국들에 단합하여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를 존중하도록 촉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좌측)를 예방한 아우 장관(우측)



아우 국장(좌측에서 두 번째)과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차관보(우측에서 두 번째)의 면담

알제는 아우 홍콩 상무경제발전국장은 5월15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



알제는 아우 상무경제발전국 장관, '무역원활화를 위한 AI 혁신' 토의 세션에서 발언

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토의세션에서는, APEC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무역을 보호하도록 연합하고, 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강화하는데 긴밀히 협력하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제주 방문 기간, 아우 국장은 통상장관회의와 별도로 개최된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제 관련 의견을 교류하였다. 또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예방하여, 홍콩의 최근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양 지역 간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 F&B 대표단, 홍콩 방문 이후 홍콩시장 진출전략 컨퍼런스 참가



컨퍼런스에 참가한 원석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우측에서 네 번째), 그 외 발표/참가자들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투자청과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콩을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지난 2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한국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홍콩의 F&B 시장을 이해하고 홍콩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콩을 방문하였다. 동 활동의 일환으로 홍콩경제무역대표부와 홍콩투자청은 최근 4월 8



4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컨퍼런스

일 서울에서 홍콩시장 진출전략 컨퍼런스에 협력 기관으로 참가하였으며, 법률, 세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컨퍼런스에서 홍콩의 F&B 시장 진출 방안과 F&B 산업을 겨냥한 브랜딩 전략 등의 지식을 공유하였다. 컨퍼런스는 한국 국내의 F&B 업체들이 홍콩의 비즈니스 리더와 네트워킹을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홍콩에서 한식의 인지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홍콩 서비스 공급업체(HKSS)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콩과 중국 본토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통한 시장접근의 이점이 한국 기업들에게 강조되었다. 외국계 기업들은 홍콩에 진출함으로써, CEPA가 주는 혜택을 제공받고, 중국 본토 시장 내의 폭 넓은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홍콩아트센터 코믹스 홈 베이스, 서울에서 <영·화 홍콩지> 홍콩 만화 x 영화 전시 개최

홍콩아트센터 코믹스 홈 베이스(Comix Home Base)가 주최하고 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협력하는 <영·화 홍콩지> 홍콩 만화 x 영화 전시(Hong Kong Comics x Movie Exhibition in Seoul)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3월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시회는 만화, 영화, 그리고 증강현실(AR) 애니

메이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시각적 접근을 통해 홍콩만의 독특한 도시 문화를 방문객들에게 선보였다. 전시회에서는 청관호(Kwan-ho Cheung) 홍콩 만화 아티스트, 펄 라우(Pearl Law) 홍콩 일러스트레이터, 이규태 한국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작품을 전시하였다.

홍콩과 한국의 작가가 참여한 행사도 3월15

일-16일 진행되었다. 스펀오프 이벤트로서 펄 라우와 Zipcy 한국 아티스트의 '라이브 드로잉 아트 잼', <어둠의 도시> 저자 유이와 주성철 씨 네플레이 편집장의 주도로 진행된 '어둠의 도시: 크로스오버와 각색' 대담회, 그리고 펄 라우의 '영.화 워크샵' 등이 있었다.



3월 15일 라이브 드로잉 잼 세션



3월 16일 대담회



청관호 홍콩 만화 작가의 작품



펄 라우 홍콩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



이규태 일러스트레이터의 작품

정부, 관광 명소 개발 실무단 추진 프로젝트 발표

척윙힝(Cheuk Wing-hing) 홍콩 정무사 부사장이 이끄는 관광 명소 개발 실무단이 5월 20일 9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실무단은 정부 부처간 협력 강화와 커뮤니티 협

조 촉진을 위해 조직되었다. 또한 다양한 지역에서 인기 높은 관광 명소 발굴과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관광 명소 신규 발굴 외에도 기존의 관광 자원을 통합 및 확대하여 관광지 가치를 극대

화하며 관광객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즐길 거리도 개발한다. 지금까지 일반인에 개방되지 않았던 장소들을 공개함으로써 관광객들은 더욱 새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대 프로젝트 현황:

- 홍콩 산업 브랜드 관광
- 빅토리아 파크 바자회
- 핑크 트럼펫 트리 가든 조성
- 커뮤니티 소개 - 구석구석 찾아가는 올드 타운
- 커뮤니티 소개 - 구석구석 찾아가는 카우룽 시티
- 교정시설 방문
- 전 아우마테이 경찰청 개방
- "Four Peaks" 관광
- 홍콩 철도 터미널 부두 활성화



수석대표, APEC SOM1와 관련 회의 참여 위해 부산과 경주 방문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3월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과 경주를 방문했다. 수석대표는 이 기간 동안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제 1차 고위관리회의(SOM1) 참석을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 홍콩 공업무역서장을 지원하고,

관련 면담에 참석하였다.

수석대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홍콩의 APEC 2025 참여 지원을 당부했으며, 무역·관광·문화 협력에서 홍콩과 한국 간의 교류 확대를 약속하였다.

부산에서는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을 만나 항공 물류와 콜드 체인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강조했다. 이어 부산 기반의 기업들을 만나 커피와 기타 상품의 중국 본토 및 국제 시장 수출에 홍콩을 관문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와의 면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와의 면담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과와의 면담

수석대표, APEC SOM2와 관련 회의 참여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원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참석을 위해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제주에는 한국 정부에 의해 APEC 2025 기간 중 제 2차 SOM과 부문별 장관급 회의의 개최지로 지정됐다. 원섬 아우 수석대표가 제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 방문 기간 중 수석대표는 김완근 제주시장, 오순문 서귀포시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또한 금번 2025 제주포럼 '영 리더스 프로그램'에 홍콩 청년 대표 샬롯 라우(Miss Charlotte Lau)를 초청



김완근 제주시장과의 면담



오순문 서귀포시장과의 면담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과의 면담



제주 카카오 본사 방문

한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기업 부문에서는 제주 카카오 본사를 방문하였으며,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벤 령 CEO와 만났다. 제주신화월드는 홍콩 소재 랜딩 인터내셔널 개발이 100% 출자한 외자기업이다. 수석대표는 이번 방문을 통해 홍콩을 포함한 해외 이용자들이 카카오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제주신화월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주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관중 예술후원 해외전시 시리즈: 우관중: 흑과 백 사이>, 7월 서울에서 전시

홍콩예술박물관(Hong Kong Museum of Art, HKMoA)은 7월 25일(금)부터 10월 19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20세기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우관중(1919 - 2010)의 작품을 한국 최초로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홍콩예술박물관이 소장 중인 수묵화와 유화 중 17작이 엄선되었다. 작가가 직접 작성한 통찰력 있는 설명이 곁들여져, 관람객들은 거장의 뛰어난 색상적 미학과 예술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흑과 백의 향연을 통해 상상력이 자극되는 경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홍콩 예술가 장한겸(Chris Cheung

Hon Him - h0nh1m)의 몰입형 설치미술도 같이 전시될 예정이다. 박물관이 소장한 우관중의 작품 수백 점을 인공지능(AI)에 학습시키고 분석시킨 후 만들어낸 작품이다. 관람객들은 함께 창작에 참여하고 우관중의 비전통적인 작품과 정신의 비밀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탐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홍콩위크 2025 서울(Hong Kong Week 2025@Seoul)의 사전 행사로 개최된다. 홍콩의 예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문화교류 및 예술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해 열리는 예술 축제다. 무대 공연, 영화 상영, 야외 공연, 시

각 예술 전시회, 만화 창작, 패션 디자인 및 기타 부대 행사 등을 통해 홍콩과 서울의 창의적 인재들을 연결한다.

전시 정보

기간 2025.07.25(금) ~ 2025.10.19(일)

장소 서울서예박물관 제3전시실

홍콩위크 2025 서울의 프로그램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여가문화서비스부 기획

예술의전당과 홍콩예술박물관 공동 주최

비고 무료 전시



우관중 (1919 - 2010)
Two Swallows (두 마리 제비)
1981
종이에 먹과 채색 (69 x 138cm)
홍콩예술박물관 소장
우관중과 그의 가족 기증



우관중 (1919 - 2010)
An Encounter (만남)
1999
캔버스에 유채 (73.5 x 92cm)
홍콩예술박물관 소장
우관중과 그의 가족 기증



우관중 (1919 - 2010)
Reminiscences of Jiangnan (강남 회상)
1996
종이에 먹 (69.5 x 138.5cm)
홍콩예술박물관 소장
우관중과 그의 가족 기증



우관중 (1919 - 2010)
Waterway (수로)
1997
캔버스에 유채 (73 x 60cm)
홍콩예술박물관 소장
우관중과 그의 가족 기증



우관중 (1919 - 2010)
Bitter Melon Homestead (여주 고향)
1998
캔버스에 유채 (80 x 100cm)
홍콩예술박물관 소장
우관중과 그의 가족 기증



우관중 (1919 - 2010)
Nest (둥지)
2010
종이에 먹 (63 x 96.2cm)
홍콩예술박물관 소장
우관중과 그의 가족 기증



장한겸 (h0nh1m) | XCEED
Sentient Pond - Seoul Edition
(감성의 연못 - 서울 판)
2025
인터랙티브 몰입형 인스톨레이션

홍콩에서 개최된 'Art March 2025'

3월은 홍콩에서 예술의 달로 인식된다. 아시아 내 국제적인 아트 중심지 도시로서, 홍콩은 매년 3월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아트 페어, 문화 서밋, 전시회, 아트 페스티벌, 영화 상영이나 공연 예술 등 활기찬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주최, 후원 혹은 서포트하는 일련의 행사를 홍보하고자 'Art March'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홍콩의 예술적 분위기에 이끌려 잊지 못할 경험을 즐기고, 도시의 활기찬 문화 경관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자 기획되었다.

올해는 일련의 대규모 예술문화 행사가 'Art March 2025' 기간 동안 개최되며, 그 중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아트 센트럴

특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트 센트럴(Art Central)은 올해 10주년으로, 3월 26일부터 3월30일까지 홍콩의 상징적인 장소인 센트럴 하버프론트에서 개최되었다. 홍콩 아트 위크(Hong Kong Art Week)의 주요 행사인 아트 센트럴은 100개가 넘는 세계, 지역 및 홍콩의 갤러리, 전세계와 아시아에서 온 저명한 아티스트들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설치 미술, 공연,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한다.



아트바젤 홍콩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23개국의 신규 작품을 포함하여, 42개 국가 및 지역 내 240개 이상의 세계 유수 갤러리가 참가하는 아트바젤 홍콩은 유명 아티스트와 유망한 인재들의 걸작을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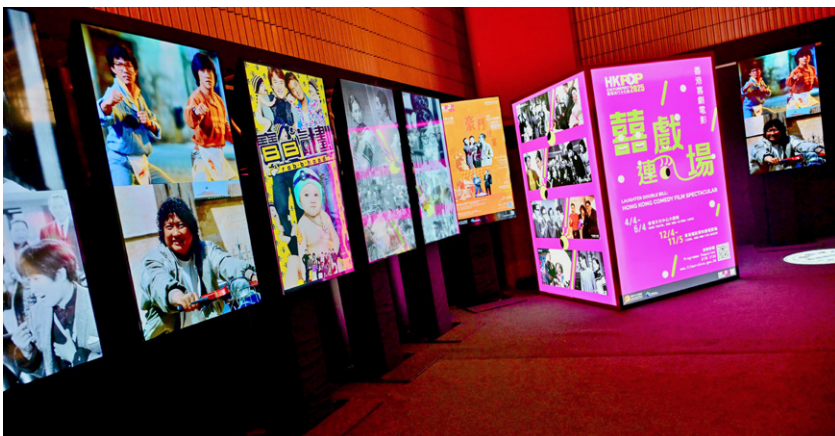
SPOTLIGHT HONG KONG



2025년 홍콩 팝 컬처 페스티벌

제3회 홍콩 팝 컬처 페스티벌이 4월에 개막해 도시 전역에서 무대 공연, 영화 상영, 주제별 전시회부터 지역사회 활동까지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즐거움, 그 이상(More Than Joy)'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행사는 즐겁고 유쾌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가 어떻게 전달되고 변화되어, 통합과 돌파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축제는 '행복'의 면에서 홍콩 대중문화의 발전을 소개하고, 관객들이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02-736-0199 (서울 연락사무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kgreets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kgreetskorea/

이메일: seoul_enquiry@hketotyto.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www.facebook.com/brandhk.isd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to.gov.hk/korea